일본의 염색 가공 공장들이 안고 있는 과제들

일본 염색 가공 업계의 염색 가공량은 여전히 줄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제품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 배경에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중국의 섬유품 생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염색 품질 수준이 낮다는 것이며, 이에 비하면 일본의 염색 가공 공장은 한발 앞서 있다. 그 차를 더욱 크게 넓힐 수 있을까? 그것이 일본의 염색 가공 공장이 섬유 산업의 키 인더스트리(key industry)로서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한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원ㆍ연료가가 급등하고 있는 예상 외의 외적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거친 파도를 극복하고자 자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염색 가공 공장들의 현실을 알아보았다.

◎ 원ㆍ연료가 인상으로 1억엔 가중, 자조 노력으로 코스트 삭감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1~9월의 직물 염색 정리(整理) 가공 실적은 전년보다도 5.6% 줄어 18억 5,728만㎡, 편포는 7.1% 줄어 4억 3,981만㎡로서 여전히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직물과 편포 합쳐 연간 30억㎡ 가공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불안하다.

이와 같이 작업량이 줄고 있는데 염색 공장에 치명타를 주고 있는 것이 원ㆍ연료 가격의 급등이다. 2004년 8월에 일본염색협회는 염색 가공임(加工賃)의 인상을 요청하였다. 최근 수년 동안 디플레이션(deflation)이 계속되어, 염색 가공임의 인하를 요구 받아온 염색 업계에게는 전례가 없는 조치였으며, 그만큼 궁지에 몰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중유, 석탄, 부탄 등의 연료, 염료, 수소, 약품, 각종 조제 등의 가격 급등은 염색 업계를 무겁게 압박하고 있다. 이 협회에 의하면 2004년 8월에 중유 가격은 전년 대비 21%, 염료, 약품, 조제는 20~29%, 석탄, 부탄은 27~34%나 값이 올라갔다.

규모가 큰 장섬유 염색 공장의 높은 원료가에 따른 코스트업(cost-up)을 보면, 사카이오벡스 염공장은 중유만이 2004년 제2/4분기에 1,000만엔을 웃돌았는데, 하반기에는 10월 한 달에 1,000만엔으로 올랐으며, 연간으로는 1억엔이 될 정도이다. 고마쓰세이렌(小松精練)은 2004년 상반기에 8천만엔, 하반기에는 1억 5천만엔 정도이다. 소코세이렌(倉庫精練)은 상반기에 약 2천만엔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섬유 염색도 매일반이다.

이와 같은 생산 코스트 상승에 각 공장은 속수무책으로 있지는 않았다. 자조 노력으로 코스트 삭감을 위하여 보일러의 교체, 인건비 삭감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코스트를 억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본염색협회가 관련 업계에 가공임 인상을 요청하고, 각 공장도 개별적으로 가공임 인상을 단행하였다. 그런데도 그 침투도는 매우 낮다. 장섬유 염색에서는 사카이오벡스가 2004년 7월부터 최저 2%의 가공임 인상을 교섭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의 달성률은 30~40%, 소코세이렌은 교섭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천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단섬유 염색 업계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가공임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생이 많다. 다이도마루타센코(大同マルタ染工)는 평균 10%의 가공임 인상을 교섭하고 있는데 아직 일부 공장만의 양해를 얻은 상태이며, 와카야마센코(和歌山染工)는 평균 5% 정도의 인상 교섭을 2004년 11월부터 시작하였는데, 아직 일부만 추진되었다. 히노레센교(日出染業)는 영업원 수준에서 어려

운 교섭이 계속되고 있다.

◎ 소로트 가공도 가공임 인상 불가피

원·연료 가격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있는 다품종 소로트 단납기 가공 주문도 생산 효율면에서는 생산 코스트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자면, 1개월 사이에도 전반의 2주 정도는 주문이 많지 않아 한산하다가 후반의 2주 동안에 일감이 집중하여 잔업하지 않을 수 없으면 생산 코스트업이 되는데, 그렇다고 가공임을 올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날염을 보면 날염 쉘(printing shell) 값의 문제도 있다. 종전에는 날염 쉘의 주문량이 1천m이건, 10만m이건 하나에 얼마라고 시세가 정해져 있었다. 요근래에는 리피트 오더(repeat order)가 별로 없으며, 주문량도 작아서 쉘 값을 염색 공장이 부담할 형편이 안된다.

견본 만들기도 같은 형편이다. 몇 번이고 다시 만들면 그만큼 새로운 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쉘의 보관 비용도 염색 공장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어떤 염색 공장에서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즘 겨우 소로트 주문의 운임은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등 시정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이러한 불공평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 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며 염색 가공장을 더욱 지치고 쇠퇴하게 할 뿐이다.

이번의 원·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가공임의 인상뿐만 아니라, 부당한 거래 조건의 개선은 염색 가공업을 참된 키 인더스트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고 본다.♣